

명사추천  
불서 100선  
표본연화경

종경(風聲)소리에 잠을 깨던 시절이 있었다. 나는 중학 1~2학년 때에 순천(順天) 시내에 있는 용화사(龍華寺)라는 절에서 묵살이(宿食)를 했다. 종경 소리에 새벽잠이 깨면 먼저 걸레를 생물에서 빨아 들고 2층 법당으로 올라갔다. 불빛을 밝히고 먼지 한 점 있을 것 같지 않은 법당 마루를 쓸고 닦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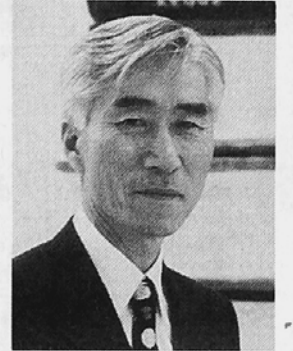
아침 예불(禮佛) 시간이 되면 스님들은 장삼(長衫)을 갖춰 입고 법당으로 올라오신다. 나는 스님들에게 목례를 하고 스님들이 기거하시는데 방으로 내려간다. 그럴 때면 방을 치우기 전에 뒷막 얇은베이 책상에 놓여 있는

영원불멸 · 평등한 불성밝혀  
어린시절 '절살이' 때 첫인연

두툼한 한적(韓籍) 두권의 책이 항상 눈길 이 갔다. 두꺼운 참종이에 정교하게 인쇄된 5월본(五綴本) 겉표에는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이란 달필의 제명(題名)이 붙어 있다.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기자면 순한문으로 인쇄된 글귀라 뜻은 알 수 없지만 심오한 진리가 글 속에 스며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용화사에는 누비옷만 입고 다니시는 걸레스님이 한 분 계셨다. 언젠가 스님에게 '묘법연화경(법화경)'이란 책이 무슨 책이냐고 물었다니 이 불경은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온 뜻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경전 중의 하나로, 임진왜란 직후 순천 송광사에서 발행한 것으로 7권 3冊본인데 한 책이 모자라 완질이 아니라며 무척 안타까워하셨다. 그 후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불경을 접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러다 5·16 군부쿠데타가 난 후 고서점을 경영하면서 한동안 선사의 불교대전 등 많은 불경을 접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묘법연화경에 대한 관심은 어느 불경보다 깊었다. 감수성이 예민하였던 중학교 시절에 가졌던 호기심 같은 것인지 모른다.

나는 출판업을 시작하면서 친구인 박태경 스님에게 묘법연화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을 꾸며 내고 싶으니 원고를 써 달라 간청을 하여 '법화경(묘법연화경)입문'이라 이름 붙여 발간



윤형두 (범우사 대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유통시키도록 설계된 경전이라 하셨다. 이 '묘법연화경'과 인연을 맺은 지 50년. 나는 이 경전의 깊은 뜻을 아직 터득하지 못했지만 조선 정종 1년(1399)에 펴낸 남재(南在) 발문본으로부터 정조 23년(1799)에 순천 송광사에서 발행한 한글 혼용본까지 72종 103책의 한적(韓籍) '묘법연화경'을 나의 서재에 두고 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영위산에서 설하신 말씀을 요진(姚秦)의 구마라습(鳩摩羅什)이 '묘법연화경'이란 제목으로 번역한 지도 1589년(406), 우리 나라 간경도감에서 윤사(尹士), 황수신 등이 왕명으로 한글본으로 번역한 지도 531년(1464)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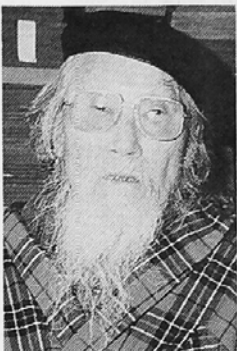
이 경전은 부처님의 종교적 생명을 실반한 것으로 모든 경전 중에서 가장 존귀한 위치를 영원토록 간직할 것이다.

고형곤 · 이기영 · 한갑진 · 이원섭  
교계 어른들 '저술 노익장'

선사상 등 무게 있는 내용... 젊은 필자 분발 촉구

불교계 '어른'들의 연구·집필 활동이 활발하다. 전서울대 인문대학장과 역경원 역경위원을 지낸 고형곤박사(90·학술원회원)를 비롯 이기영박사(74·한국불교연구원장), 한갑진씨(72·한진영화사대표), 이원섭씨(72·시인) 등이 상반기중에 그동안의 연구와 집필성과를 묶어 책으로 펴낼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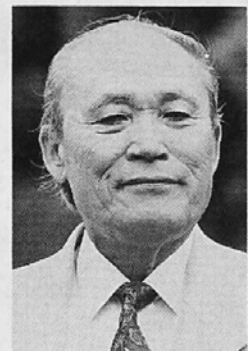
모두 고회를 넘긴 이들은 선·불교사상·경전 등 무게 있는 저작을 내놓을 예정으로 바빠 움직이고 있다.



고형곤박사



이기영박사



한갑진씨



이원섭씨

삼아 한국불교의 선지를 규명한 돋보이는 부분으로 평가된다.

고박사는 "한국불교는 불립문자에 집착한 중국선과 달리 선교경비의 독특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며 "후학들에게 도움이 될까해서 책을 낼 결심을 굳혔다"고 밝혔다.

이기영박사는 '원효사상연구2'와 '불교학개론' 증보판을 5월쯤 잇따라 펴낸다. '원효사상연구2'는 지난해 11월 열린 원효사상국제학술회에서 발표한 자신의 논문 '원효사상의 특징과 의의'를 비롯 '문화적·종교적 원형으로서의 원효' (로버트 버스웰교수, UCLA) '원효의 정토

사상 연구' (권기종교수, 동국대) 등 7편의 논문을 실어 원효사상을 정리한다. '불교학개론'은 기존의 것이 요점정리서라는 단점을 보완, 상세한 설명을 덧붙일 예정이다. 두 책 모두 한국불교연구원 출판부에서 펴낸다.

최근 '2500년전의 비구·비구니의 시'를 내놓은 한갑진씨는 '아함경'을 번역, 한진영화사에서 전4권으로 펴낼 계획이다. 이미 6천여매 분량의 원고를 탈고하고 교정작업에 들어갔다. 8천부를 제작해 스님들에게는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영국의 '마하보디 소사이어티' 판 영역본과 한역 41한(四阿含)을 텍스트로 삼았다.

이 텍스트 가운데 중복된 부분을 피해 400권을 뽑아 현대어로 옮기고 한문번역과 영역본에 차이가 있는 부분에는 주해를 달아 이해를 돕고 있다.

한갑진씨는 "오늘의 한국 불교가 찾아야 할 불교의 근본정신은 신의 개념이 아닌 '깨달은 인간으로서의 붓다'의 모습"이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굴절되지 않게 접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번역, 출판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원섭시인은 '법구경의 세계'를 펴낸다. 아함경 숫타니파타와 함께 원시불교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는 법구경 423수의 계승을 우리말로 한문으로 차례로 배치하

고, 계승의 가르침을 오늘의 삶의 지표로 풀이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한문본 마다의 차이점을 팔리어 원문에 의지해 원뜻에 가깝게 다가가는 노력을 보였다. 3월중 운주사에서 출판된다.

교계인물들의 이같은 연구·집필 활동에 대해 출판계는 "출판시장 및 유통시장 개방으로 불서출판의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원로들의 집필은 필자간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젊은 연구자와 필자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말없는 격려"라며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성운 기자)

▲초발심자경문(지목 울김)=원효 지눌 아운스님의 '발심수행장' '계초심학인론' '자경문' (초발심자경문)을 쉬운 우리말 문장으로 옮겼다. 책 뒤에는 난자집(難字集)을 덧붙여 한자에 생소한 한글세대의 이해를 도왔다. (우리출판사, 4.6배판 2천5백원, 32쪽판 2천원)

▲금강경(라즈니쉬 김의)=독특한 깨달음의 언어와 강의 법으로 금강경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태일출판사, 7천원)

▲무상을 넘어서(송석구 지음)=동국대 총장인 저자가 불교이론과 체험을 토대로 '불교는 중도를 통한 참다운 본성 지각을 이상으로 하고 있음'을 일깨우는 수상·시평집. (사사연, 6천5백원)

새로 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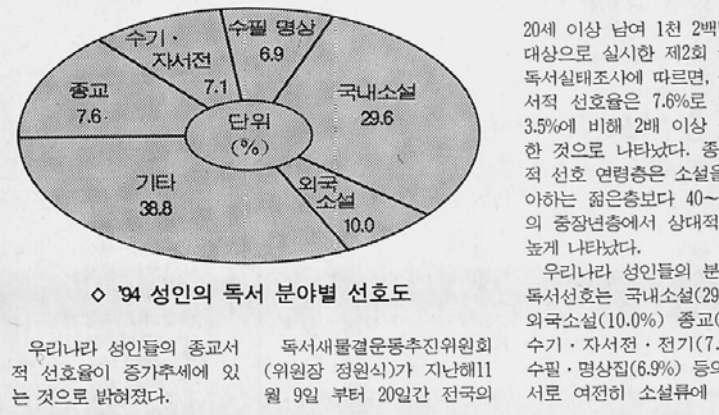
▲살아있는 국토박물관(고려·조선편, 인정에 지음)=사화와 폐사지 박물관 등의 유물유적을 통해 선조들의 지혜와 역사를 배우는 문화답사기. 여주 고달사지 부도를 비롯 전국의 54개 지역의 유물·유적을 찾았다. 부록으로 27개 박물관의 길안내를 자세히 실었다. (심지, 6천원)

▲나를 보게 하소서(현장 지음)=열반선을 10여년간 수행지도해온 저자의 열반선 수행지침서. 전통적으로 열반이 구복·기원의 성격을 가져오는데 반해 이 책은 열반을 통해 복을 찾는 본질적 의미를 밝힘으로써 열반 본래의 뜻을 복원하고 있다. (민족사, 5천5백원)

구독문의 737-8881

일반인 종교서적 선호도 높다

국민독서조사 지난해 7.6% 1년새 2배이상늘어



부수 3천원(남편 3만6천)을 넘어서었다. 법보시에 의한 다량일시판매가 아닌 순수판매를 통해 3천원을 넘어서는

관매고는 불서출판계에서는 매우 드문 기록이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역자	출판사
1	금강경 강의	무비	불광
2	알기쉬운 불교	권성부	불교방송
3	선재초 108	혜인	가람기획
4	인연이야기	법정	불일
5	오직 그대 자신을...	나리다	경서원
6	어린이 천수경	김호성	불광
7	정통사찰-서울	최원익 외	사찰문화연구원
8	미라클레의 심만승	이정섭 역	시공사
9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일타	효림
10	능엄경	김재두 역	민족사

구입문의: (02)737-0695

**올해년 참회산림대법회 및 출판기념 법회**

초발심자경문(大·小) / 지목 지목스님이 들려준 불교이야기

본 수효사에서는 올해년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이 참회산림대법회를 봉행하오며 아울러 전국의 학인들을 위하여 《초발심자경문》을 법공양하오니 이 뜻있는 참회산림대법회와 출판기념회에 많은 동참바랍니다.

참회산림법회 중

① 《초발심자경문》 강원 및 학인들에게 보내주기 (1구좌 54권, 2구좌 108권)

② 108배 참회 기도    ③ 참회전인 일반배 및 1종식

❖ 참회산림대법회와 출판기념 법회

3월 1일(음 2. 1) 오전 10시 30분    법사: 지목 스님(초발심자경문 강의)

3월 2일(음 2. 2) 오전 10시 30분    법사: 지목 스님(초발심자경문 강의)

3월 3일(음 2. 3) 오전 10시 30분    법사: 지목 스님(초발심자경문 강의)

\* 《초발심자경문》 법공양을 원하거나 필요하신 분은 불서포교회(☎ 313-3060)로 연락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수효사 ☎ 313-3060 · 3037

**제14차 성훈따주기**

조상들이 사용했던 방법을 개발한 것으로 차멀미에서 중병에 이르기까지 삼능침 하나로 간단,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가정에서 갑자기 발생한 환자를 응급처치할 수 있는 민간 전통 요법인 따주기는 누구나 배우기가 쉽고 활용은 간편, 효과는 부작용이 없어 100%이다.

※수료 후 따주기 자격증 발부.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지도: 무구스님(수효사 원장)

**제3차 사군자강의**

사군자는 매화·난초·국화·대나무를 소재로 그린 묵화를 말하며 정신집중과 마음수양에 으뜸가는 정신수양법이다. 또한 전통적인 옛것에 대한 이해와 함께 사물을 깊게 이해하는 통찰력을 기를 수 있는 정서활동이다.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지도: 윤 산 (국전 심사위원)

**고통받는 사람은 오시오!**

의학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현대에도 몸이 아파 고통받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의 옛 선조들은 일상생활에서 민간요법을 터득, 건강을 유지해 왔습니다.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좋은 성훈 따주기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잔병에 시달리지 마시고 찾아 오시기 바랍니다. 치료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봉사기간 → 1995년 2월 21일 ~5월 31일(100일간)

**성훈 따주기 공덕회 일동**  
문의전화 ☎ 313-3060 · 3037